

# 신정훈-문인 연대... 시장 선거판 요동

## 친명계 지신 연대... 정치적 협력 구축 통합 선대위 구성 통합시장 선거 대응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신정훈 국회의원(사진)이 통합시장 선거를 앞두고 친명계 인사들과 연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거구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양측은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와 신과 역할을 한 신 의원과 문 의원은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측 최측근 인사들이 별도 회동을 갖고 향후 정치적 협력 방향을 논의, 신 의원의 통합시장 선거 지지를 중심으로 손을 잡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문 정장과 의회 하부 전인 지난달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 걸음을 피했다. 당시 행사에는 친명계 인사와 지지자 등 약 1만명이 참석했다.

측근 회동이 이뤄진 3일에는 '준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와 '신남방 경제



신정훈 문인

중심도시'를 골자로 특별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과 포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명계 연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전남 기반 정치세력과 광주 기반 친명 정치세력 간 전략적 결합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 정장이 통합 전 광주시장 준비

과정에서 구상해온 다양한 정책과 행정 경험을 신 의원 측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해 선거 연대와 함께 정책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향후 양측이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성공적 출범과 통합시장 선거 대응을 위한 통합 선거대책위원회(통합선대위) 구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시장 선거에 앞서 친명계 중심의 정치 재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남과 광주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 간의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인사 교류가 아닌 판을 흔들 신호가 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AI 산업 육성...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초대 통합단체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병훈 전 국회의원(사진)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법 제정 자체가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통합 이후 산업과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항공우주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전남 동부권·서남권·남부권과 광주 연계권·광주 도시권 등 5대 권역 발전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기능을 분담하고 협력 기반의 상생 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방사체·위성·우주부품 산업을 집적화해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병훈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부품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중심의 기존 산업은 고기능성·경량화 중심의 첨단소재 산업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을 집적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고 신안군의 에너지 이차공용 모델을 확산해 주민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관광 산업은 해양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강진 '반값여행'과 같은 모델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해 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과 숙박·문화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생명 산업은 가공·유통·연구 기능을 고도화해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 농어촌 소득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남도의병 합성 품은 역사공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 7년 만 결실... 422억원 투입 1박 2일 뮤지엄스테이 결합 체류형박물관 모델 등 기대

나주에 남도의병 정신을 기리는 역사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5일 나주 공산면 일원에서 남도의병의 승고한 정신을 기리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장을 누비며 나라를 지킨 남도 의병의 희생을 기리며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7년의 준비 끝에 도민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물관 야외 공간인 '바람의 테라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비롯하여 의병 후손과 관련 단체,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박물관 건립 경과보고와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사,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不還服)' 태극기 기탁식, 유공자 표창, 현관 재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관식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앞장서 싸웠던 남도 의병의 정신을 되새기고, 전남과 광주 지역이 이어온 연대와 나눔의 전통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나주 공산면에서 열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주요내빈들과 현관식을 하고 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건립이 추진돼 약 7년 만에 완성됐다. 총사업비 422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7321㎡ 규모로 조성됐다.

박물관 외벽에는 3만3000여개의 '키네틱 파사드' 패널이 설치됐다. 바람과 빛에 따라 움직이는 금속 패널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도록 설계돼, 전장을 달리던 3만3000 남도의병의 합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전시 공간에는 도민 참여로 수집된 유

물 3085점이 전시된다. 이 가운데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있던 '불원복' 태극기가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시돼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체류형 문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1박2일 '뮤지엄스테이'를 도입해 관람과 숙박,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박물관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미래 세대에 의병 정신을 교육하는 '의 교육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도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공동체를 위해 몸을 던졌던 남도 의병의 정신은 지역이 이어온 연대와 나눔의 뿌리"라며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미래 세대에 의병 정신을 전하고 도민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정준호 "전남광주 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운수종사자 복지금 환원도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사진)은 5일 북구 살레시오 중점(일곡공영영차고지)에서 운수종사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무는 '전남광주(One-Pass) 통합요금제'를 약속했다.

정 의원은 새벽부터 운행을 준비하는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간 전남과 광주 시민들은 동일 생활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왔으나, 시와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요금 체계와 환승 미적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전남과 광주는 출퇴근, 통학, 의료 등 이미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교통 체계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계에 다다랐



정준호

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 의원은 △수도권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한 전남·광주 맞춤형 통합요금제 도입 △시의 경제 통과 시 환승요금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교통 복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기·수소 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기반 강화, 절감된 연료비를 활용한 운수종사자 복지금 환원, 운수사 손실분 선제적 보전을 통한 경영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정준호 의원은 "경계는 사라지고 혜택은 더 커지는 전남·광주 원패스 시대를 열겠다"며 "전남·광주가 더 이상 나뉘는 생활권이 아닌 하나의 경제권이자 교통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 등록 "여수대도약...중단 없는 전진"

정기명 여수시장(사진)이 5일 6·3 지방선거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기명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시장 운영에 다소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직 여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수의 더 큰 내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는 불안한 초보가 아닌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경제시장이 돼 여수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우선으로 더 나은 여수,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여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정기명 예비후보는 여수시 화정면 개도가 고향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유의 친근함과 소탈함 등 토박이 정치인이자 겸손한 리더로 알려져 있다.

정 예비후보는 여수시청 고문번호사 17년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회 의장 11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지역위원회 위원장직 2회, 20여개 단체의 고문 또는 자문번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정기명 시장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여수시는 정현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정기명

## 김덕수 나주시장 예비후보 후보 얼굴 없는 현수막 '눈길'

김덕수 조국혁신당 나주시장 예비후보의 이색적인 선거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선거 현수막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던 '거대한 후보자 얼굴 사진'을 과감히 없애고, 기하학적인 문드러진 디자인(삼성 비스포크)을 전면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덕수 예비후보는 이번 현수막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을 '선거 공해 해소'와 '나주 미관 존중'으로 꼽았다.

선거철만 되면 원색적인 배경과 자극적인 문구로 뒤덮이는 거리가 시민들에게 피로감과 정치 혐오감을 준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디자인에 담긴 경제적 메시지도 주목할 만하다. 현수막에 적용된 선과 면의 조화, 이른바 '문드러진 패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사육 외벽 디자인으로 즐겨 사용하는 양식이다. 이는 나주에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빛가람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의 산업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김 예비후보의 강력한 경제 비전을 시각적으로 은유한 것이다.

김덕수 예비후보는 "선거 초반 제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주의 품격을 지키고 목직인 경제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김덕수

## 정달성 북구청장 예비후보 "생활만족 1등 도시 만들 터"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생활만족 1등 북구'를 목표로 한 미래 발전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를 통합특별시 중심도시로 만들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만족 1등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7대 비전을 내놨다.

우선 경제 만족 도시를 위해 31사단 이전과 AI 산업 거점 조성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31사단 부지를 AI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미래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북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과 복합돌봄·의료단지 조성 등을 통한 복지 만족 도시 △우치공원 복합테마파크와 무등산 위케이션 센터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AI 행정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스마트 자치 북구 △디지털트윈 기반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녹색 도시 △미래대학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교육 만족 1등 북구 등을 제시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달성

## 황경아 남구청장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확대·질적 전환"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2026 상반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질적 전환을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남구 일부 행정동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섰고, 홀몸 어르신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공공근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신노년 세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전환을 제시했다.

실생활에서의 휴대용 활용이나 키오스크 이용 등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 속 AI 기술을 활용한 케어 모델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건강과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일자리시장에 진입한 만큼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생활 밀착형 직무 도입도 강조했다.

황경아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단선 공공근로를 지역 안전 지킴이, 학교·아동 돌봄 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 해석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황경아